

「가나안 이야기」

다비드 • 하다스 • 타미 • 다나 • 토하

샬롬! 가정의 달 5월에 세종시 안식관에서 문안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번 소식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식년 기간에는 정기 서신을 두 달에 한 번씩만 전하기로 했기에 늦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안식년을 오늘로 72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었네요. 지난 두 달여의 시간들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어떻게 보냈고 또 그간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 안식년에 주신 선물들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온 날부터 약 한 달 정도는 정말이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냈습니다. 때로는 늦은 저녁까지 모임이 진행될 때로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들 참석해야 하는 모임들도 많았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안식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원래의 한국 생활을 잠시 잊고 있던 제가 빨리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반에 정신없이 보냈던 일정도 어느 정도 끝나고 나름의 여유와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면서 나름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즐거웠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짧게나마 나눕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조산원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아이들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해서 보건소에 가서 확인했고 각각 담희O형, 단아A형, 도하A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족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더군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의 혈액형 검사를 의뢰하면서 산전검사도 받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출산 국가 한국에서 넷째라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 주가 9주차 인데 안식년 기간에 생긴 아이라 저희들은 태명을 '안식이'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출산과 산후조리는 안식년 기간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 오랜만에 만나게 된 가족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18:28-29).

안식년은 저희들에게도 참 기다려졌던 시간이지만 저희들 보다 더 오랜 시간 저희들을 기다려온 가족들이 있었음을 지난 두 달의 시간동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떠나 먼 타국에서 지내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아쉬움들, 자녀로서 그간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효와 도리를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채워가려합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태국에 살고 있는 처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의 방문이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모였던 주일날 아침 가정예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불교신자인 '타비사' (처남댁)는 누구보다 집중하며 복음을 잘 듣더군요. 이 모임을 준비하던 중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배 선교사님을 잠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였던 말씀이 제 머리 속에 계속 남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타비사'에게 전했습니다. **“태국 사람들 예수님 꼭 믿어야 해요”** 당연한 그 이야기,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이 메시지가 그날 아침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잘 녹아져 흡수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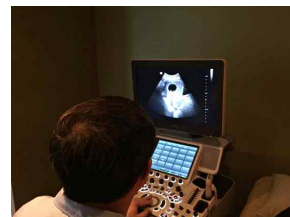
■ 베두인 마을 이야기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타마르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두인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타마르 팀 사역자들이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팀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리아'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호송했는데 결국 발가락 세 개를 절단했고, 신장 투석도 한 주에 두 번씩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당뇨와 합병증으로 몸의 여러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심각한 몸 상태가 되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매주 두 번의 신장 투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할머니의 병원 치료비와 이를 부담으로 안고 있는 아들 이브라힘의 염려와 고민을 타마르 팀에서 기도제목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알리아 할머니의 회복과 치료 과정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타마르 팀을 통해 베두인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돌봄 받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림: 안식년 기간 중에는 정기서신을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각종 모임들...



넷째 안식이 (9주...)



아이들 혈액형 검사



조카들과 대구 이월대에서



태국에서 온 타비사



늘사랑 전략회의



알리아 할머니

「 기도제목 」

“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 ” (빌1:27a)

1. 계획했던 한국에서의 생활과 2기 사역 준비(종교비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 아내(하다스)의 입덧과 태중 아이(안식이)의 건강을 위해
3. 알리야 할머니의 건강 회복과 병원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4. 요압 아저씨 가정과 이브라힘 가정의 가족 구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5. 이웃들(V.I.P)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정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타미, 다나, 토하)
 - 외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
 - 외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 주 소 :
세종시 금남면 용포2길 70, 두진리버빌 아파트 102동 1009호
(안식년 기간에 머물게 될 안식관 주소입니다.)
- ※ 연락처 :
■ 휴대폰: +82-(0)10-9523-0432 (정재석)
+82-(0)10-6849-7632 (강혜정)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jaesuk96@gmail.com